



김국영 가세...육상 100m 한·중·일 '삼국지'

‘10초07’ 쯤 4위 기록...“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서 9초대 진입”

국내에 적수가 없는 한국 최고 스프린터 김국영(27·광주광역시청)이 시아를 아시아로 넓혔다. 그는 지난 27일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7 코리아오픈 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결승전에서 10초07의 한국 신기록을 세운 뒤 “외롭지 않다. 중국에서는 이미 9초99(쑤빙텐)를 뺀 선수가 나왔고, 일본에서는 10초0대를 기록한 선

수가 많다”며 “아시아에서 그들과 함께 뛰고 경쟁하겠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10초2대를 뺀 선수도 찾기 어렵다. 10초1, 10초0대를 뺀 선수는 김국영뿐이다. 김국영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남자 100m에서 독주했다. 하지만 그는 ‘국내 일인자’에 만족하지 않았다. 한국보다 저변이 넓은 일본과 중국을 의식했고, 혼

자서라도 추격하고자 했다. 10초07은 그렇게 홀로 싸워 얻은 값진 성과물이다. 김국영은 10초1대를 돌파하면서 남자 100m 아시아 4위로 올라섰다. 때 시즌 아시아에서도 10위권 밖에 머물던 김국영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갔다. 올 시즌 남자 100m 아시아 1위는 기류 요시히데(일본)다. 기류는 3월 11일 호주에서 10초04의 레이스를 펼쳤다. 2.3위도

일본 선수다. 사이 브라운 압델 하키무는 24일 일본육상선수권대회에서 10초05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다. 야마가타 료타는 3월 호주에서 10초06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즈카 쇼타, 다다 슈헤이, 캄브리지 아스카(이상 10초08)도 올해 10초0대 기록을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총 6명이 2017년에 10초0대를 뚫었다. 아시아 랭킹 1위 기류가 런던 세계선수권 100m 대표팀(국가당 3명)에서 제외될 정도로 일본의 단거리 저변이 넓다. 일본은 ‘100m 9초 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가동해 스프린터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올 시즌 김국영보다 빨리 달린 선수가 나오지 않았다. ‘순수 동양인’ 최초로 9초99를 기록한 쑤빙텐과 중국이 주목하는 신예 세전예가 10초09로 아시아 공동 8위다. 나이지리아에서 귀화한 ‘아시아 기록 보유자(9초91)’ 페미 오구노데(카타르)는 10초13으로 아직 런던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10초12)을 넘지 못했다. 김국영의 ‘아시아 랭킹’이 올라가는 걸 보며 한국 육상은 희망을 품는다. 김국영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는 꼭 9초대에 진입하고 싶다”고 했다. 그가 목표를 달성하면 아시아 남자 100m 역사도 바뀐다. /연합뉴스



어느새...KIA ‘좌완 풍년’

지난 27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의 시즌 10차전에서 KIA 선발 투수 양현종이 투구를 펼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황재균, 극적 ML행

‘국내 유턴’ 모색 중에 내야수 부상 1군 콜업 오늘 3루수 출전 예정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28일(이하 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황재균을 이틀만 메이저리그로 콜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역 일간지 ‘더 머큐리 뉴스’도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황재균을 25인 로스터에 등재할 것”이라며 “황재균은 텍사스의 엘 파소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다”고 전했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획득한 황재균은 국내 구단들의 거액 제의를 뿌리치고 메이저리그 명문 샌프란시스코로 이적했다. 황재균은 스프링캠프 시범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으나 샌프란시스코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 A 새크라멘토 리버캐츠에서 올 시즌을 맞았다. 황재균은 올 시즌 마이너리그 트리플 A 68경기에서 타율 0.287과 7홈런, 44타점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 기다림에 지친 황재균은 다음 달 2일 옵트아웃(opt-out)을 행사해 국내 유턴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할 계획이었다.

전날에는 옵트아웃 행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내 유턴 가능성이 불거지자 영입전에 뛰어든 KBO 리그 유력 구단의 감독, 고위 관계자의 의견이 국내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행운이 찾아왔다. 최근 1군에 콜업된 백업 내야수 코너 길라스피의 허리 부상이 재발하면서 황재균에게 극적으로 기회가 찾아왔다. 샌프란시스코는 29일 홈구장인 AT&T 파크에서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를 치른다. 상대 선발은 좌완 카일 프리랜드다.

‘더 머큐리 뉴스’의 앤드루 배질리 기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브루스) 보지 감독은 황재균을 29일 3루수로 선발 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황재균은 29일자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황재균은 역대 21번째 코리안 메이저리거가 될 전망이다. 황재균은 메이저리그 무대를 반드시 밟겠다는 일념 하나로 스프링 캠프에 간수했다. 석 달 가까이 마이너리그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견딘 황재균이 비로소 자신의 영원을 이뤄냈다. /연합뉴스



선발 양현종·팻딘·정용운·임기준...불펜 고효준·박경태 28일 엔트리 등록 12명 중 7명 좌완...가용 인원 늘어 이명기·최형우·서동욱 등 타석에서도 왼손 비중 커져

KIA 타이거즈의 좌완 고민을 풀 2017 시즌이다. 타이거즈는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한 걸출한 투수들을 바탕으로 V10을 이룬 명문 구단이다. 하지만 ‘마운드 왕조’로 통했던 타이거즈에도 ‘원손’이라는 고민은 있었다. 지난 시즌에도 선발 양현종 불펜 심동섭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좌완 자원이 없었다. 지난해 여름 임준혁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새 등지를 쓴 고효준이 새로운 야구 인생을 열며 마운드에 숨통은 트여졌지만, 좌완은 KIA의 고질적인 약점이자 고민거리였다. 올 시즌은 분위기가 다르다. 일단 ‘물량 공세’가 가능한 정도로 마운드 가용인원이 늘었다. 28일 엔트리에 등록된 12명의 투수 중 7자리를 좌완이 차지했다. 선발진부터 헛터를 빼고 좌완 일색이다. 비로 한 경기를 쉬고 5경기를 소화했던 지난해 KIA는 헛터를 시작으로 양현종-팻딘-정용운-임기준이 선발 로테이션을 돌았다. 좌완 투수가 연달아 4경기에 등판했다. 이번 주 양현종과 헛터가 등판 순서

를 바꾸기는 했지만 29일부터 다시 좌완들이 연달아 출격하게 된다. 불펜에도 심동섭과 함께 고효준, 박경태 등 세 명의 좌완이 대기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좌완진의 힘을 키워가고 있다. 정용운은 연패 위기에서 값진 2승을 올리면서 선발진 새 힘이 됐다. 선발로 나선 세 번째 등판에서 3이닝 3실점(2자책점)을 기록하며 선발 역할을 잘 수행했다. 뒤늦게 1군에 합류한 임기준도 첫 선발 등판에서 빠른 템포의 피칭과 한층 안정된 제구로 기대감을 높였다. 불펜의 중심에는 고효준이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승부를 하면서 김윤동 다음으로 많은 이닝을 소화해주고 있다. 고효준은 “지난 NC와의 경기에서는 너무 집중해서 오히려 좋지 못했다. 편하게 승부를 하려고 한다. 피홈런 없는 시즌이 목표 중 하나였는데 지난 사직 경기에서 깨져버렸다. 아직은 밝힐 수 없지만 남은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 분위기가 SK시절하고 비슷한 것 같다. 좌완이 없다고 했었는데 잠재되어 있던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어느 순간 좌완이 많아졌었다. 지금 각자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줘야 한다”며 “처음에는 나도 좌완 선배로서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후배들이 던지는 것을 보고 배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좌투수뿐만 아니라 타석에서도 ‘원손’의 비중이 커졌다. 언더 투수인 삼성 김대우가 선발로 나선 28일 KIA는 이명기를 시작으로 김주찬-버나디나-최형우-안치홍-서동욱-최원준-김민식-김선빈으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김주찬, 안치홍, 김선빈을 빼고 좌타자로 상대 투수에 따른 ‘맞춤형 라인업’을 짰다. 나홀로 책임이 컸던 앞선 몇 년에 비해 ‘원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구성됐다. 2017시즌을 통해 KIA가 오랜 시간 풀지 못했던 좌완 고민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투수들 화요일에 나가고 싶어해”

덕아웃 T 특특

▲화요일에 나가고 싶어해=KIA 선발 투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일은? 지난 27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된 양현종은 경기 끝난 뒤 “버티다면 어느 팀을 만나도 득점 지원을 해준다. 투수들이 화요일에 나가고 싶어 한다”며 웃었다. 올 시즌 KIA는 화요일에 막강 화력을 과시하면서 10승1패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화요일 팀타율은 0.329에 이르고 11경기에서 90득점을 만들며 평균 8.2점을 기록하고 있다. 27일에도 KIA 타자들은 장단 14안타로 11점을 뽑으며 양현종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한편 이날 양현종은 6이닝 6피안타(1피홈런) 1볼넷 3탈삼진 3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되면 4년 연속 10승 고지를 밟았다. 또 삼성전 승리와 함께 올 시즌 가장 먼저 전구단 상대 승리투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있을 수가 없죠=9년 차 좌완 정용운에게 2017시즌은 잊을 수 없는 시즌. 오랜 부진과 부상을 딛고 데뷔 후 처음 선발 자리를 맡은 그는 귀한 2승

도 거뒀다. 앞선 등판에서 막강 NC 타선을 상대로 좋은 피칭을 하면서 오는 주말 LG 원정에서 네 번째 선발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정용운은 “다음 경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이번 경기를 잘해야 기회가 오는 것이다”며 “지난해 1군에서 12경기를 했는데 평균 자책점이 7.89였다. 올 시즌 딱 12경기를 소화했는데 평균자책점이 3.00이다. 절실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운은 또 “지난해 6월14일이 마지막 경기였다. 그게 마지막 등판 날이라서 날짜도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3타점이 아니라 1타점이요=안치홍에게는 속스러운 안타였다. 안치홍은 지난 27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멀티히트와 함께 3타점을 올리며 11-4 승리에 역할을 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안치홍은 “3타점이 아니라 1타점이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날 안치홍은 상대 야수들이 허공에서 공을 놓치면서 행운의 안타를 얻어 타점을 올렸다. 또 1사 2·3루에서는 안타가 아닌 땅볼로 타점을 추가했다. 운이 따른 타점이었다는 의미에서 안치홍은 ‘1타점’이라면서 속스러워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축구의 ‘구원 투수’로 나설 새 대표팀 사령탑의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될까? 대표팀 감독 선발·추천권을 가진 새 기술위원장에 김호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선임되면서 ‘포스트 슈틸리케’ 선임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롭게 대표팀 지휘봉을 잡을 인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감독 계약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지가 축구협회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축구협회는 새 감독이 남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2경기에서 한국 축구

축구대표팀 감독 계약 기간 고민이네

최종예선 2경기·본선 ‘분리 선임’ 무계 ‘본선시까지’ 슈틸리케 1년치 17억 챙겨

의 본선행을 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최종예선과 본선 감독을 ‘분리’ 선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단 ‘내국인’ 감독이 소망수로 나서 8

월31일 이란, 9월5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예선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해 급한 불을 꺼준다면 여유를 갖고 거물급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겠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원포인트 릴리프’ 감독이라도 단 2경기만 치르고 그만둬야 하는 단기 계약을 원할 리가 만무하다. 한국 축구의 9월 연속 본선 진출 목표 달성을 지휘한다면 러시아 월드컵 본선까지 지휘하고 싶은 감독 후보들의 기본 심리이기 때문이다. 이용수 전 기술위원장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월드컵 최종예선을 통과한다면 본선까지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며 단기 계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호근 선임 기술위원장도 “기술위원회가 새 감독 후보를 결정하면 그 분과 협의

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계약 기간이 월드컵 본선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축구협회도 월드컵 시즌에는 통상적으로 ‘월드컵 본선까지’로 계약하는 게 관례였다. 최강희 전북 감독의 경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경질된 조광래 전 감독을 대신해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뒤 본선행을 확정하고도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하지만 새 대표팀 감독은 한국 축구의 명운을 결정할 만큼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임 과정에서 ‘월드컵

본선까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줄 것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종전 조광래 전 감독은 계약 기간 전에 경질당한 후 소송을 통해 7개월치 월급을 모두 받았고, 슈틸리케 전 감독은 성적 부진에 책임을 물어 경질됐음에도 계약 기간이 ‘월드컵 본선시’까지 돼 있어 1년여의 연봉 17억여원을 그대로 받았다. 새 감독 후보가 스스로 ‘내 임기를 월드컵 최종예선 2경기로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계약 기간은 결국 ‘본선 진출까지’로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